

한국전쟁과 중공군 ‘인해전술’의 실체

Human-Wave Tactics or Mobile Infiltration Warfare?

전투 기록 · 중국 측 자료 · 현대 군사사 연구의 교차검증



AI 생성 개념 이미지 - 실제 한국전쟁 사료 사진이 아님

최종 판정

‘중공군은 한국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사용했다’는 명제는 ②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과도한 단순화에 가장 가깝다. 전투 수준에서는 반복·제파식 정면강습이 실제로 확인되지만, 작전 수준의 핵심은 야간·은폐, 침투·우회, 포위·분할, 퇴로 차단, 근접전, 국지적 병력집중을 결합한 보병 중심의 운동전이었다.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전면 개정판 · 2026 년 8 월 27 일

연구 요약 (Executive Summary)

한 문장 결론

중공군(정식 명칭: 중국인민지원군, Chinese People's Volunteers, PVA)이 일부 전투에서 밀집된 정면돌격과 제파식 반복공격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전쟁 전체의 대표 전술로 부르면서 초기 성공의 핵심이었던 기습, 야간 이동, 침투, 우회, 포위, 도로 차단, 근접전, 국지적 병력집중과 유엔군의 정보 실패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보고서는 '인해전술'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다시 정의한다. 전장에서 많은 병력이 보였다는 사실, 같은 목표에 여러 공격제대가 연속 투입되었다는 사실, 실제로 밀집된 정면돌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장진호 전투에 관한 미 해병대 공식사는 서방 언론의 'human sea' 이미지를 비판하면서, 중공군이 대체로 50~100 명 규모의 compact combat groups 를 반복 투입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운산, 지평리, 임진강, 1951 년 춘계공세의 일부 국면에서는 정면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공격이 실제로 기록된다. 핵심은 '있었는가/없었는가'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대표적이었는가'이다. [3]

1. 'Human-wave attack'은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군대의 밀집 공격을 묘사하는 서방의 서술어였고, 한국전쟁에서 1950 년 말부터 중공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자국의 공식 핵심 교리명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약하다.
2. 중공군이 스스로 강조한 전술어는 집중우세병력, 운동전, 근접전·야간전, 다로(多路) 공격, 침투·분할, 우회·포위에 더 가깝다. 현대 중국의 공식 군사매체도 한국전쟁의 초기 전법을 '다로 기동공격전'으로 요약한다. [7]
3. 1950 년의 중공군은 보병의 숙련도와 행군능력은 높았지만 포병, 차량, 무전, 공군, 보급에서 미군과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 이 비대칭이 야간·산악·근거리 전투를 선택하게 만든 구조적 요인이었다.
4. 초기 성공의 제 1 요인은 총병력의 절대량보다 전략적 기습이었다. 미 극동군 정보판단은 중공군 개입의 규모와 의도를 반복적으로 축소평가했고, 유엔군은 도로축을 따라 길게 분산된 채 북진했다. [1] [4]
5. 중공군의 공격은 방어선 정면만이 아니라 부대 사이의 틈, 측면, 후방 도로와 고개를 동시에 겨냥했다. 전방에서 싸우던 병사는 수적 압박을 경험했지만, 사단·군단 수준에서 보면 그 압박은 침투와 포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6. 1951 년 2 월 지평리는 전환점이었다. 전방위 방어, 등록 포병, 자동화기, 공중보급, 낮 동안의 공군지원이 결합되자 중공군은 병력우세를 빠른 돌파로 전환하지 못했다. [5] [6]
7. 리지웨이와 밴 플리트 시대 유엔군은 부대 간격을 줄이고, 적극정찰·예비대·야간경계·포병·전차·공군을 연결했다. 중공군이 돌파력을 위해 집결할수록 포병의 효율이 커지는 딜레마가 만들어졌다. [2] [9]
8. '7 일 공세'는 모든 공세가 정확히 일주일에 종료되었다는 법칙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측 공식 자료도 초기 공격이 보통 5~7 일가량 지속되는 보급 한계에 묶였음을 인정한다. [8]
9. 중공군의 인명손실을 단일 숫자로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 공식 통계와 유엔군 전시 추정은 전사·부상·실종·질병·동상·후송 후 복귀자를 서로 다르게 계산한다. 다만 1951 년 봄 이후 반복 정면강습의 비용이 급증했다는 방향성은 양측 기록이 대체로 일치한다.
10. 따라서 가장 정확한 대체 개념은 '야간·은폐 기반의 침투·포위·근접전과 국지적 병력집중을 결합한 보병 중심 운동전'이다. '인해전술'은 특정 순간을 묘사할 수 있지만 전체 체계를 설명하는 용어로는 부정확하다.

목차

연구 방법과 용어 원칙	4
1. '인해전술'의 정의와 용어의 기원	5
2. 1950 년 중국 개입과 중공군의 전력구조	6
3. 실제 전투에서 확인되는 중공군 전술	7
4. 주요 전투 사례연구	8
5. 초기 중공군이 유엔군을 압도한 이유	10
6. 1951 년 이후 유엔군의 적응과 반전	11
7. 손실·보급·병력보충과 '7 일 공세'	12
8. 지휘관·장병의 기록과 전장 인식	13
9. 언론·선전·대중문화와 '인해전술' 신화	13
10. 현대 군사사학계의 평가와 논쟁	14
11. 최종 판정과 대체 개념	15
부록 A. 대표적 오해 10 가지	15
부록 B. 중공군 실제 전술의 핵심요소	16
부록 C. 주요 전투별 비교표	16
주석 및 참고문헌·추가 읽을 자료	17

연구 방법과 용어 원칙

본 보고서는 자료를 여섯 층위로 나누어 읽는다. 첫째, 미 육군·미 해병대의 공식전사와 전투보고서. 둘째, 당시 미군·한국군·영국군 장병과 지휘관의 회고. 셋째, 중국 측 공식 전사·군사매체·지휘관 회고. 넷째, 중공군의 작전계획과 지휘체계를 재구성한 현대 학술연구. 다섯째, 전시 언론과 선전물. 여섯째, 전후 대중문화이다. 이 자료들은 서로 다른 질문에 강점이 있다. 전투보고서는 현장의 세부에 강하지만 적 병력 추정은 과장될 수 있고, 회고록은 체험이 생생하지만 시야가 제한적이며, 국가 공식전사는 조직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신 국가서사에 영향을 받는다.

[분석적 추론] ‘인해전술’ 논쟁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전술 수준과 작전 수준을 섞는 것이다. 한 중대가 방어하는 고지에 중공군 두세 개 중대가 연속으로 돌입했다면 그 장면은 충분히 ‘human wave’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대들이 그 고지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단 차원에서 야간 침투, 우회, 도로 차단, 양익 포위를 실시했다면 작전 전체를 ‘정면 인해돌격’으로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용어 표기

사용자 요청에 따라 본문에서 일반적인 한국어 서술은 ‘중공군’으로 통일한다. 다만 정식 조직명은 ‘중국인민지원군(PVA)’이며, 중국 정부·중국 측 자료·중국 인민해방군(PLA)처럼 국가나 제도의 고유명칭은 그대로 표기한다.

자료 유형	장점	주의점
미 육군·해병대 공식전사	작전일자·명령·부대기록을 종합, 전투 흐름 복원에 강함	전시 적 병력·손실 추정은 과대·오차 가능
중국 측 공식전사·군사자료	중공군 지휘의도·편제·후방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	정치적 정당화와 승전서사의 영향 고려
지휘관·참전자 회고	전장 체험과 인식, 지휘 분위기를 보여줌	후대 기억의 재구성, 시야의 제한
현대 학술연구	미·중 자료를 교차검증하고 전략·정치와 연결	저자별 해석 차이와 자료 접근성 차이
언론·선전·대중문화	‘인해전술’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	작전 실체의 직접 증거로 사용하면 위험

1. '인해전술'의 정의와 용어의 기원

1.1 군사학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Human-wave attack'은 엄밀한 현대 교범의 단일 표준용어라기보다, 많은 보병을 파상 또는 제대별로 반복 투입하여 방어자의 화력과 병력을 소모시키거나 압도하려는 공격을 묘사하는 역사적 표현이다. 이 표현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보병공격, 중일전쟁·태평양전쟁의 일부 일본군 돌격, 러시아·중국의 대규모 보병공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말은 아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네 가지 현상을 구분해야 한다. 첫째, 병사가 서로 가까운 간격으로 넓은 정면을 직선적으로 돌격하는 '밀집 정면돌격'. 둘째, 서로 다른 중대·대대가 같은 목표에 시간차를 두고 연속 투입되는 '제파식·제대식 공격'(successive/echeloned assault). 셋째, 여러 방향에서 분산 접근한 부대가 한 지점에서만 수적으로 집중되는 '국지적 병력집중'. 넷째, 방어선 뒤로 스며들어 도로·고개·지휘소를 잡는 '침투·포위'이다. 전장에서 이 네 가지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지만 지휘 원리는 서로 다르다.

“인해전술”이라는 한 단어가 가리는 두 가지 전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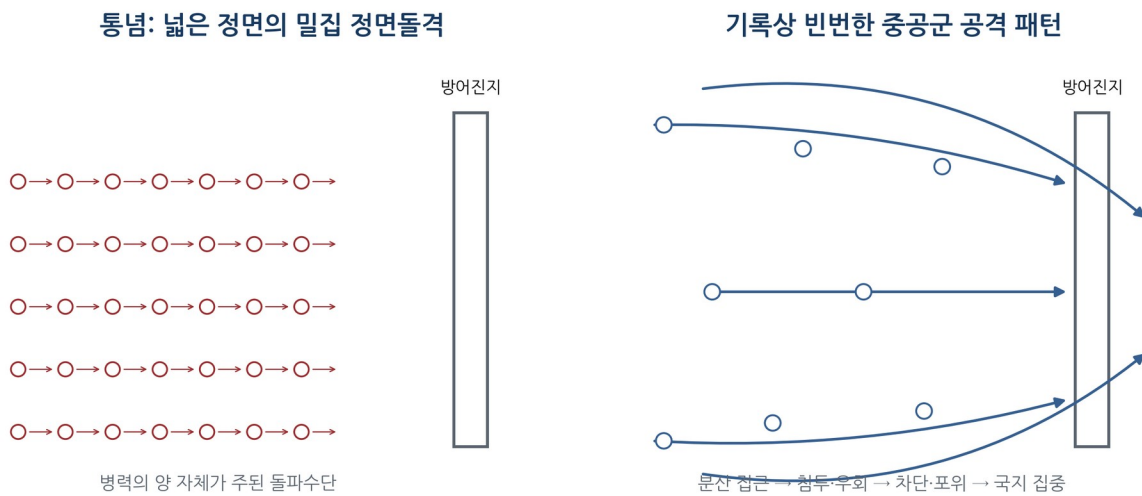


그림 1. 통념적 '인해전술'과 작전기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침투·포위형 공격의 차이(개념도).

1.2 이 표현은 언제 중공군에 적용되었는가

[확인된 사실] 미군 공식자료와 전지 언론에서 'human wave', 'mass attack', 'hordes', 'swarming' 같은 표현은 1950년 11월 운산 전투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 미 육군의 후대 공식 브로슈어도 운산의 일부 공격을 'human wave'라고 표현하는 동시에, 같은 장면에서 후방 roadblock, 측면 침투, 지휘소 돌파를 함께 서술한다. 즉 이 용어는 현장 체험을 포착했지만 전술 전체를 정확히 정의한 교리명은 아니었다. [1]

1.3 중공군 자신이 '인해전술'을 공식 교리로 썼는가

[중국 측 공식 설명] 공개된 중공군 전사·회고·교리 계보에서 한국전쟁의 공식 핵심 전술개념을 '人海战术(인해전술)'이라고 명명한 근거는 약하다. 중국 측 군사자료는 '집중우세병력', '운동전', '근전야전(近战夜战)', '다로 기동공격', '천삽분할(穿插分割)', '우회포위(迂回包围)'를 강조한다. 2020년 중국 군사매체 「中国军网」은 초기 전법을 '다로 기동공격전(多路机动进攻战)'으로 요약하면서, 은밀한 접근·다방향 공격·침투분할·우회포위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7]

[현대 학계 평가] 중국 측의 '인해전술은 서방의 왜곡'이라는 반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반복 정면 강습의 실제 사례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Xiaobing Li의 연구처럼 중국 자료를 적극 활용한 학자도 1951년 춘계공세에서 'massive attack' 또는 human-wave로 보일 수 있는 공격과 심각한 탄약·식량 부족을 함께 다룬다. [12]

1.4 서로 다른 용어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용어	핵심 의미	한국전쟁에서의 적용
Human wave	밀집·연속 정면공격을 강조하는 묘사	일부 전투 국면에는 적합, 전체 중공군 교리의 총칭으로는 부정확
Mass attack	많은 병력을 한 목표·구역에 집중	정면뿐 아니라 우회·침투를 포함할 수 있음
Infiltration	틈을 이용해 방어선 내부·후방으로 스며들	운산·청천강·장진호·횡성 등에서 반복 확인
Envelopment	측면·후방을 돌아 퇴로와 지휘·보급을 위협	중공군 운동전의 핵심 요소
Night attack	야간에 접근·공격하여 관측·공군 우위를 감소	초기 중공군의 대표적 전장 선택
Echeloned assault	여러 공격제대를 시간차로 순차 투입	방어자에게 ‘끝없는 파도’로 인식될 수 있음

2. 1950 년 중국 개입과 중공군의 전력구조

2.1 개입 결정과 중국인민지원군 창설

1950 년 9 월 인천상륙작전 뒤 북한군이 붕괴하고 유엔군이 38 선을 넘어 북진하자 베이징의 판단은 급격히 바뀌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할 경우 동북지역의 산업·안보가 직접 위협받고,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적 위상과 동맹관계에도 손상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입은 자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군사적 열세와 국내 재건, 소련의 실제 지원 범위를 놓고 지도부 내부에 우려가 컸다. Chen Jian 은 중국 문서와 당시 관계자 자료를 이용해 이 결정이 안보·혁명·동맹·국내정치가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10]

[확인된 사실] 1950 년 10 월 중국은 동북변방군을 중심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을 편성하고 평터화이를 사령원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했다. 주력은 10 월 19 일부터 압록강을 건넜고, 10 월 25 일 전투가 시작되었다. ‘지원군’이라는 명칭은 국가 간 전면전의 외형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 부대는 PLA 정규군이였다.

2.2 마오쩌둥과 평터화이의 전략적 목표

초기의 당면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고 유엔군을 중국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는 것이었다. 제 1 차 공세는 존재를 숨긴 채 유엔군의 반응을 탐색하는 성격이 강했고, 제 2 차 공세의 대승 뒤에는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 1950 년 12 월 이후 베이징은 38 선 이남까지 압박해 더 큰 정치·군사적 성과를 얻으려 했지만, 제 3 차·제 4 차 전역에서 보급한계가 드러나고 1951 년 춘계공세가 전략적 돌파에 실패하자 목표는 보다 제한적인 장기전과 협상 병행으로 이동했다. Zhang Shuguang 은 이 과정에서 마오가 인간·사기·기동이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혁명전쟁 경험을 지나치게 신뢰했다고 비판한다. [11]

2.3 보병은 강했지만 ‘합동군’으로서는 약했다

분야	중공군의 특징(1950 년)	유엔군, 특히 미군	전술적 결과
보병	내전 경험, 장거리 도보행군·야간전 숙련	개인·분대 화력과 통신이 우세	중공군은 지형·야간·근접전으로 강점을 확대
포병	수량·탄약·관측·수송에서 제한	사단·군단 포병과 관측·사격지휘 우세	공개지형의 장시간 교전 회피
전차	초기에는 사실상 미미	전차·자주포를 기동 직사화력으로 사용	중공군은 근거리·측후방 접근 선호
공군	초기 지상군 직접지원 거의 없음	제 5 공군 중심의 강한 제공·근접항공지원	낮 이동·집결 억제, 야간 이동 강화
통신	무전기 부족, 전령·전화·나팔·호각 의존	연대 이하까지 비교적 촘촘한 무전망	공격계획이 경직되고 국지 성공 확대가 어려움
수송·보급	도보·짐꾼·수송동물·야간트럭 의존	대규모 차량·철도·항공보급	공세 지속시간이 식량·탄약에 강하게 제약

2.4 기술격차가 전술을 규정했다

[분석적 추론] 중공군에게 '낮에는 숨고 밤에는 움직이며, 먼 거리의 화력전보다 가까이 붙고, 도로보다 능선을 타며, 전선 전체보다 약점 한 곳에 병력을 몰아넣는 것'은 낭만적 선택이라기보다 합리적인 비대칭전술이었다. 반대로 이런 방식은 통신·보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공격이 시간표와 단순 신호에 의존하고, 돌파 후 추격이 멈추는 구조적 약점도 만들었다.

3. 실제 전투에서 확인되는 중공군 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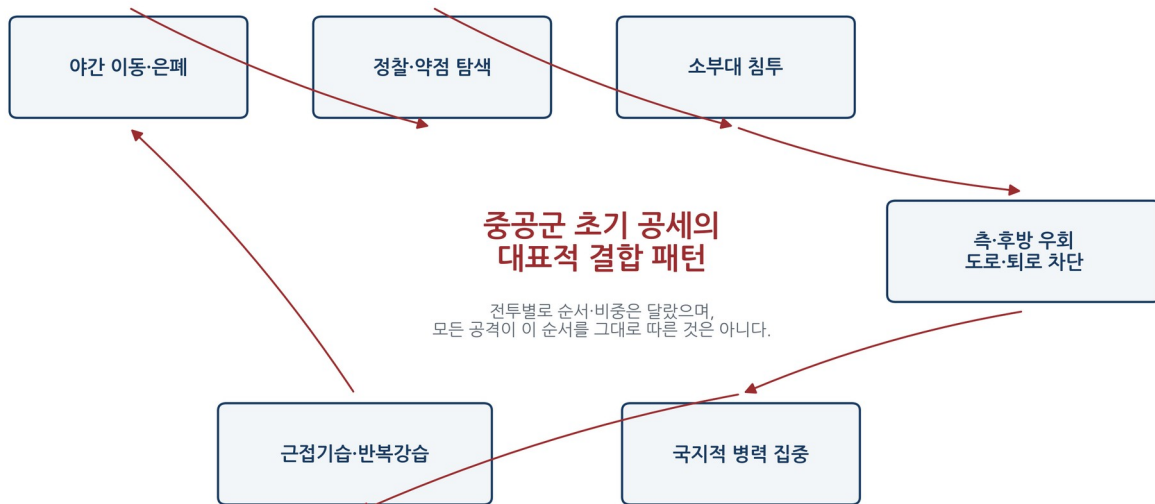


그림 2. 중공군 초기 공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전술 요소의 결합(개념도).

3.1 야간 이동·은폐·위장

[확인된 사실] 미 육군 공식전사는 중공군이 만주에서 북한으로 이동할 때 밤에 행군하고 낮에는 산악·촌락·숲에 은폐함으로써 유엔군 공중정찰을 피했다고 설명한다. 유엔군 항공기가 국경 너머 중국 영공을 자유롭게 정찰할 수 없었던 제한도 기습에 기여했다. [1] [2]

야간전은 공격개시 시간의 선택만이 아니었다. 병력의 집결, 보급 이동, 침투, 지휘소 접근, roadblock 설치 등 모든 행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공격이 시작된 뒤'에야 적의 주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3.2 산악지형 활용과 소부대 침투

중공군은 차량이 부족했지만 보병의 산악행군 능력이 뛰어났다. 유엔군은 보급과 차량 때문에 계곡의 도로축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고, 중공군은 도로 사이 능선과 고개를 이용해 측면을 돌아갔다. 침투부대의 목적은 언제나 전투 자체가 아니었다. 교량·고개·도로교차점·포병진지·지휘소를 점령해 후방의 흐름을 끊으면, 정면의 유엔군 부대가 철수하는 순간 전체 전투가 붕괴될 수 있었다.

3.3 측·후방 우회, 퇴로 차단, 포위·분할

[중국 측 공식 설명] 중국 군사매체 「中国军网」이 '천삽분할·우회포위'를 한국전쟁의 대표 전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실제 작전기록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7] 다만 중국 공식서술은 성공적인 포위의도를 강조하는 반면, 실제 전장에 서는 통신과 보급부족 때문에 포위망이 닫히지 않거나 유엔군이 화력으로 돌파한 사례도 많았다.

3.4 근거리 기습: 화력의 안전거리를 무너뜨리기

평터화이와 중공군 지휘부는 미군의 가장 큰 우위가 포병·공군·전차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다. 따라서 상대가 관측·조정사격을 하기 전에 접근하고, 일단 교전이 시작되면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에서 수류탄·기관단총·경기관총·박

격포로 싸우려 했다. 미 해병대 공식사는 장진호에서 이를 'short attack'과 소규모 compact combat group 의 반복 투입으로 설명한다. [3]

3.5 반복공격과 제파식 공격

제파식 공격은 '인해전술'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다. 한 공격제대가 방어진지에 충돌해 손실을 입으면 뒤따르는 제대가 같은 지점 또는 인접한 약점을 다시 공격했다. 통신이 제한된 중공군에게 이런 방식은 단순하고 실행하기 쉬웠다. 그러나 방어자의 자동화기와 포병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평리와 1951 년 춘계공세의 여러 고지전이 그 한계를 보여준다.

3.6 실제 밀집 정면돌격은 언제 나타났는가

[확인된 사실] 실제 밀집돌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좁은 계곡·고개, 이미 노출된 돌파축, 야간의 방향유지 문제, 지휘통신의 제한, 급한 시간표 때문에 병력이 특정 접근로에 겹쳐 들어갔고, 중대·대대급 반복강습이 넓은 의미의 human wave 처럼 관찰되었다. 특히 지평리·임진강·춘계공세 일부 지역에서는 'wave after wave'라는 유엔군 기록이 전적으로 허구라고 볼 수 없다.

[분석적 추론] 그러나 '정면돌격이 있었다'와 '중공군의 전술은 인해전술이었다'는 다른 명제다. 전술의 대표성을 판단하려면 공격 전 준비, 접근축, 측후방 부대, 도로차단, 예비대 운용까지 보아야 한다.

3.7 나팔·호각·신호탄: 공포의 상징이면서 통신수단

나팔과 호각은 심리전 효과가 컸지만 그 기능은 실용적이기도 했다. 무전기가 부족한 하급부대에서 공격개시, 집결, 방향전환, 중지·철수 신호를 전달하는 데 쓰였다. 야간에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리는 신호음은 미군·한국군·영국군 장병에게 적의 규모가 실제보다 더 크고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따라서 나팔은 '무모한 인해돌격의 증거'라기 보다 중공군 통신체계와 야간전 방식의 일부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4. 주요 전투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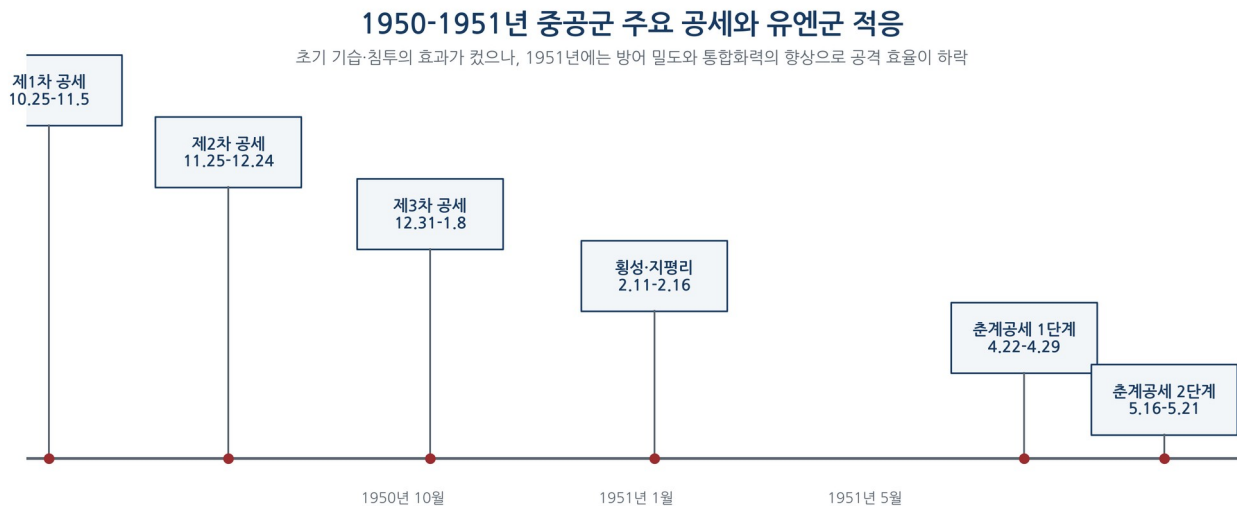


그림 3.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주요 중공군 공세와 유엔군의 적응.

4.1 제 1 차 공세와 운산 - 전장에서는 “파도”, 작전에서는 침투·포위

1950년 10월 말 제 1 차 공세에서 중공군은 자신의 규모와 존재를 가능한 한 숨긴 채 한국군과 미군의 전진축을 선택적으로 타격했다. 운산에서 미 8기병연대는 정면뿐 아니라 북·북서·서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후방 도로가 차단되면서 철수 자체가 전투가 되었다. 미 육군 공식 브로슈어는 생존자들이 'massed Chinese infantry'에 큰 충격을 받았고 3 대대가 'human wave' 공격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같은 기록은 중대규모 중공군 부대가 한국군으로 오인되어 다리를 통과한 뒤 지휘소를 습격한 사례와 roadblock 을 동시에 강조한다. [1]

[판정] 운산은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이 '병사의 체험'에는 상당히 들어맞지만, 작전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불충분한 대표 사례다. 결정적 요인은 기습, 여러 방향의 접근, 지휘소 침투, 후방차단이었다.

4.2 제 2 차 공세·청천강 - 전략적 기습과 유엔군 전선의 분절

11 월 25 일 중공군은 유엔군의 'Home by Christmas' 복진이 가장 길게 늘어진 시점에 주공을 개시했다. 서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군 제 2 군단 방면에 중점을 두어 돌파한 뒤 인접 미군 부대의 측면과 후방을 위협했다. 청천강 전투에서 유엔군은 도로를 따라 철수해야 했고, 중공군은 산악기동으로 도로차단을 시도했다. 미 육군 공식사는 이 시기의 핵심을 'threat of envelopment', 'roadblock', 'lines of communication'의 위기로 묘사한다. [2]

방어자에게는 '어디서나 적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전선 전체를 같은 밀도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뚫어 연쇄붕괴를 만드는 집중이었다. 따라서 숫자 우세는 중요했지만 '모든 정면에서 숫자로 밀어붙였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4.3 장진호 - 통념을 가장 분명하게 교정하는 사례

장진호에서 제 9 병단은 미 해병 1 사단과 미 육군 부대를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고립시키려 했다.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혹한, 부실한 동계장비, 장거리 보급, 공중차단 때문에 중공군도 엄청난 전투·비전투 손실을 입었다. 미 해병대 공식사는 서방 언론이 'human sea attacks'와 'hordes'를 과장했다고 지적하고, 실제 공격단위는 보통 50~100 명 규모의 compact combat groups 였다고 설명한다. [3]

이 공식사는 평터화이가 미군이 근접전을 꺼린다고 보았으며, 성공할 때까지 비교적 작은 전투집단을 연속 투입하는 'short attack'을 중시했다고 설명한다. 장진호 동쪽에서는 침투와 roadblock 이 철수행렬을 반복적으로 끊었다. 반대로 특정 고지와 도로차단점을 둘러싼 전투에서는 반복강습이 벌어져 공격부대가 큰 손실을 입었다. 장진호는 '인해전술이 전혀 없었다'가 아니라 '인해전술 하나로는 전투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례다.

4.4 제 3 차 공세와 서울 재점령 - 성공한 기동, 짧은 지속성

1950 년 12 월 31 일 시작된 제 3 차 공세에서 중·북한군은 서부전선에 병력을 집중했고 유엔군은 서울을 포기해 한강 남쪽으로 물러났다. 중공군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을 재점령했지만, 공격의 추진력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병력 피로와 탄약·식량 문제가 누적되었고 전선이 남하할수록 보급거리가 늘어났다. 리지웨이는 이 반복되는 공격-정지 리듬에서 중공군의 물류적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4.5 원주·횡성 - 취약부문 돌파와 후퇴로의 붕괴

1951 년 2 월 11~12 일 중공군은 중앙전선에서 한국군 제 8 사단 등 취약한 부문을 집중 공격해 빠르게 침투했다. 후퇴로가 제한된 산악지형에서 도로와 고개가 막히자 한국군과 지원부대의 철수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전투는 '강한 미군 정면을 숫자로 밀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부를 찾아 전체 방어체계를 흔드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5]

4.6 지평리 - 중공군 공격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전환점

미 23 연대전투단과 프랑스대대는 지평리 주변에 비교적 작은 원형 방어선을 구축했다. 2 월 13~15 일 중공군 약 3 개 사단이 여러 방향에서 반복공격했지만, 수비대는 상호지원 가능한 진지, 철조망, 자동화기, 등록된 포병사격, 공중보급, 낮의 항공지원으로 버텼다. 미 육군 공식전사는 공격부대가 방어선의 서로 다른 구역을 계속 탐색하며 야간에 압박했다고 기록한다. [5] [6]

[현대 학계 평가] 지평리의 의미는 '몇 명을 사살했는가'보다 시스템의 변화에 있다. 중공군은 수적 우세를 유지했지만 방어선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틈을 이용해 한 부대를 고립시키기 어려웠고, 공격을 위해 집결할수록 등록된 포병과 자동화기 앞에 노출되었다. 이후 유엔군 지휘부는 이런 전방위 방어와 화력집중을 적극적으로 반복했다.

4.7 임진강 - "wave after wave"가 부분적으로 실제였던 전투

4 월 22 일 시작된 춘계공세에서 영국 29 여단의 대대들은 넓은 전선을 맡아 서로 떨어져 있었다. 중공군은 야간에 임진강을 건너 감악산과 대대 사이 간격을 이용해 후방으로 침투했고, 글로스터대대를 비롯한 여러 진지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 영국의 전투기억에서 'wave after wave'라는 표현이 강하게 남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반복강습은 사전에 이루어진 강 도하, 능선 침투, 부대 분리, 보급로 차단과 결합되어 있었다. [16]

4.8 1951 년 춘계공세 - 병력규모의 정점과 전략적 한계

제 5 차 전역(서방 문헌의 Chinese Spring Offensive)은 4 월 22 일 시작된 1 단계와 5 월 16 일 시작된 2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계에서 중공군은 서부·중부를 압박해 서울을 다시 위협했으나 유엔군은 전선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후퇴했고, 포병과 항공이 추격부대를 지속적으로 타격했다. 2 단계에서는 동부 한국군 전선에서 큰 돌파가 발생했지만 중공군은 이를 전략적 붕괴로 확대하지 못했다. [2] [12]

이 공세는 인해전술 논쟁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준다. 실제로 매우 많은 병력이 좁은 전선과 특정 고지에 반복 투입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장면이 있었다. 동시에 중국 측 작전계획은 여전히 다방향 기동, 침투·포위, 적 부대 분할을 목표로 했다. 결국 문제는 '사람을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기술·통신·보급의 열세 때문에 작전적 포위를 전술적 돌파와 지속적 추격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5. 초기 중공군이 유엔군을 압도한 이유

5.1 전략적 기습과 정보판단 실패

1950 년 10~11 월 미 극동군 정보부는 중국 개입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상향했지만, 중국이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해 유엔군의 복진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의도와 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늦게 받아들였다. Appleman 의 미 육군 공식전사는 11 월 초에도 전투접촉이 확인된 중공군을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할 정보보고를 기록한다. 맥아더는 11 월 4 일에도 대규모 개입 가능성을 즉시 받아들이기에는 'fundamental logical reasons'가 있다고 회신했다. [4]

[분석적 추론] 전쟁사에서 수적 우세의 효과는 상대가 그 수를 알고 대비할 때와 모를 때가 전혀 다르다. 중공군은 단순히 많았던 것이 아니라, 많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까지 숨겼다. 이것이 초기 '인해'의 충격을 증폭시킨 핵심이다.

5.2 유엔군 부대 사이의 큰 간격과 도로 의존

북한의 산악지형과 제한된 도로망 때문에 유엔군 사단은 여러 도로축으로 갈라졌고, 미 8군과 X 군단 사이에도 작전적 공백이 있었다. 전진 속도가 빨라질수록 측방경계와 예비대가 약해졌다. 중공군은 이 틈에 보병을 투입해 전방의 강한 진지를 우회하고, 후방 도로를 잡아 철수와 보급을 동시에 위협했다.

5.3 야간전·산악전이 기술격차를 줄였다

미군의 공군·포병·전차는 관측과 통신이 가능한 낮 시간에 가장 강했다. 중공군은 전투시간과 지형을 바꿈으로써 기술우위를 완전히 무효화하지는 못했지만 효율을 낮췄다. 특히 밤의 근접전에서는 공군지원이 제한되고, 포병도 야군과 적군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사격이 어려워졌다.

5.4 국지적 병력집중 - 전체 숫자보다 중요한 것

마오쩌둥의 혁명전쟁에서 반복되는 원칙은 '전략적으로 열세여도 전술적으로는 우세를 만든다'는 것이다. 중공군은 전선 전체에서 미군보다 압도적인 숫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특정 연대·대대·고지·도로교차점에 여러 배의 병력을 짧은 시간 집중해 한 점을 무너뜨리고, 그 성공이 인접부대를 후퇴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원리는 '집중우세병력'과 더 잘 맞으며, 인해전술이라는 말은 그 공간적 선택을 지운다.

5.5 심리적 충격과 정보의 비대칭

야간에 나팔·호각이 울리고, 정면뿐 아니라 뒤쪽에서도 총성이 들리며, 철수로에 적이 나타나는 상황은 병사에게 '적'이 무한히 많다'는 인상을 준다. 그 인상은 실재한 전장경험이다. 다만 사단급 작전지도를 보면 적이 전선 전체를 채운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핵심 통로에 집중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끝없이 몰려왔다'는 증언과 '침투·포위가 핵심이었다'는 분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6. 1951 년 이후 유엔군의 적응과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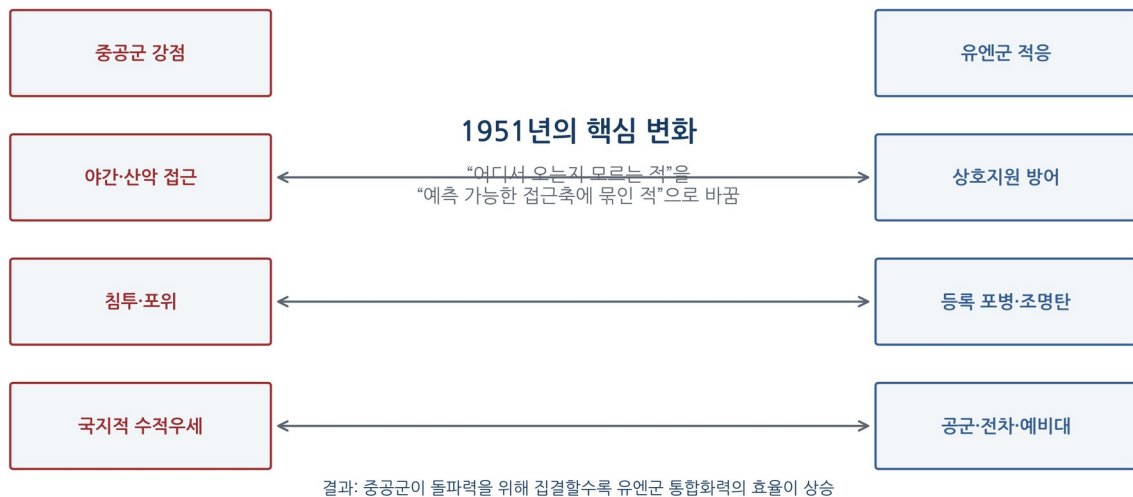


그림 4. 1951 년 유엔군의 적응: 중공군의 강점을 예측 가능한 접근축과 통합화력의 문제로 전환.

6.1 리지웨이: 전선을 연결하고 적을 찾아내라

월턴 워커가 1950 년 12 월 23 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미 8 군을 인계받은 매슈 리지웨이는 부대의 자신감과 지휘 방식을 동시에 바꾸려 했다. 그의 핵심은 무조건 고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적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정찰하고, 부대 사이의 큰 틈을 줄이며, 상호지원 가능한 방어선을 만들고, 공격도 통제된 단계선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중공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 나와 한 부대를 고립시키는’ 전술을 쓰기 어려워졌다. [14]

6.2 지평리의 교훈: 원형 방어와 집중화력

지평리는 한 연대전투단이 고립된 상황에서도 방어주변을 너무 넓히지 않고, 각 진지가 옆 진지를 지원하며, 포병을 중앙집중적으로 운용하고, 공중보급으로 버티면 중공군의 수적우세를 견딜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교훈은 이후 유엔군이 고립된 전초나 돌출부를 운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6.3 포병·공군·전차를 하나의 체계로

유엔군의 적응은 ‘포병을 많이 쏘았다’로 끝나지 않는다. 순찰과 전초가 접근축을 찾아내고, 관측소가 표적을 확인하고, 포병이 미리 등록한 사격을 실시하며, 전차와 자동화기가 돌파점을 막고, 동이 트면 전술공군이 집결지와 후방을 공격했다. 중공군이 야간에 얻은 전술적 성공을 낮 동안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6.4 Van Fleet Load - 강철과 불로 병력을 절약하다

1951 년 4 월 미 8 군 사령관이 된 제임스 밴 플리트는 포병탄을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훨씬 공격적으로 쓰도록 했다. 미 육군 연구는 ‘Van Fleet Load’가 이전 사용량의 약 5 배 수준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한다. 밴 플리트는 5 월 14 일 ‘steel and fire, not men’을 쓰고 싶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9]

[분석적 추론] 이 변화는 인해전술에 대한 단순한 ‘화력 대 숫자’ 대응이 아니었다. 중공군이 분산하면 돌파력이 약해지고, 돌파하려고 집결하면 포병의 표적이 된다. 근접하면 미군 보병·전차와 맞닥뜨리고, 거리를 두면 포병·공군이 유리하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전술적 선택지를 서로 불리한 딜레마로 묶었다.

6.5 야간 방어·철조망·지뢰·조명

야간 경계조와 청음초, 조명탄, 철조망, 지뢰, 상호교차 기관총사격, 사전등록 포병사격, 가까운 예비대는 중공군이 어둠을 이용해 방어진 안쪽까지 침투하는 것을 더 어렵게 했다. 1951 년 봄 이후 중공군은 같은 수준의 돌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병력과 더 긴 준비가 필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공중·포병화력의 노출시간이 늘었다.

7. 손실·보급·병력보충과 '7 일 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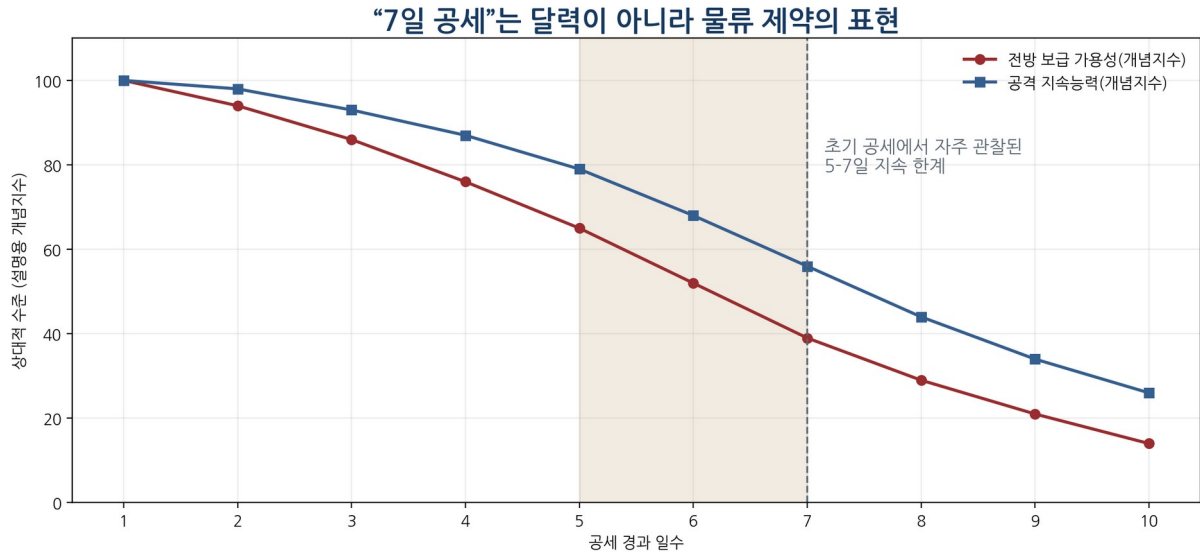


그림 5. '7일 공세'는 고정된 작전 규칙이 아니라 초기 중공군의 전방 보급 제약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7.1 왜 중공군 공세는 자주 짧게 끝났는가

[중국 측 공식 설명] 중국 군사매체 「中国军网」은 초기 한국전쟁에서 후방보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세가 일반적으로 약 7일을 넘기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리지웨이가 이를 'week-long offensive'로 파악했다고 서술한다. 다른 중국 측 자료는 병사가 직접 짚어진 식량·탄약으로 5~7일 정도를 버티는 상황을 설명한다. [8]

이 제약은 식량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탄약, 수류탄, 박격포탄, 방한장비, 의약품, 들것과 후송수단이 모두 부족했다. 트럭은 낮에 공중공격을 받기 쉬웠고, 교량·철도는 지속적으로 폭격되었다. 전투부대가 빠르게 전진할수록 보급부대와와의 거리가 벌어졌고, 후퇴하는 유엔군의 기계화 속도를 도보부대가 따라잡기 어려웠다.

7.2 인명손실과 보충능력

중국은 대규모 인구와 내전에서 형성된 동원체계를 갖고 있었고, 여러 군을 순환 투입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술열세를 일정 기간 보완한 중요한 장점이었다. 그러나 '병력이 많으니 손실을 무시했다'고 단정하면 지휘부의 실제 고민을 놓친다. 평터화이는 큰 전과 없이 병력을 소모하는 전투를 비판했고, 1951년 5월 이후 마오와 중공군 지휘부는 미·영군의 소규모 부대를 확실히 포위섬멸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줄이는 '작은 섬멸전' 방향을 강조했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零敲牛皮糖'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17]

7.3 손실수치가 크게 다른 이유

한국전쟁 중공군 손실은 출처마다 크게 다르다. 유엔군의 전사 추정치는 관측된 시체, 포병·공군 효과 추정, 포로 진술을 결합했기 때문에 과대추정될 수 있고, 중국 공식통계는 전사·부상·실종·질병·동상·후송 후 복귀 등을 서로 다른 범주로 관리했다. 장진호의 경우 전투손실과 동상·동사 등 비전투손실을 어디까지 합산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특정 단일 숫자보다 '손실이 전술변화에 어떤 압력을 주었는가'를 중시한다.

7.4 병력의 양이 기술열세를 어디까지 보완했는가

병력의 양은 초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산악지형의 여러 통로를 동시에 점유하고, 유엔군의 길어진 전선을 포화시키며, 손실을 감수하고 여러 번 공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포병·공군·차량·통신·의료·보급의 열세를 무한정 대체할 수는 없었다. 1951년 봄 이후 유엔군이 전선을 촘촘히 만들자 '한 지점에서 숫자를 모으는 행위' 자체가 포병과 공군에 노출되는 원인이 되었다. 제5차 전역 이후 중공군이 대규모 운동전을 줄이고 진지전과 제한된 전술공격으로 이동한 것은 그 한계를 보여준다.

8. 지휘관·장병의 기록과 전장 인식

8.1 더글러스 맥아더 - 개입규모 오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쟁”으로

맥아더와 극동군사령부는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중국이 전쟁의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대규모 정규군을 투입할 의지와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11월 제2차 공세로 북진이 붕괴한 뒤 맥아더는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전쟁’으로 규정하고 전쟁 확대를 주장했다. 그의 기록은 ‘중공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기보다, 확인된 개입을 전략적 규모와 의도에서 오판했다는 쪽이 정확하다. [4] [15]

8.2 월턴 워커 - 분산된 전선을 수습해야 했던 지휘관

워커의 미 8군은 제2차 공세에서 한국군 전선의 붕괴와 후방차단 위협을 동시에 맞았다. 예비대를 투입해 틈을 매우려 했지만 유엔군이 이미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고, 중공군은 산악을 통해 도로축 사이를 넘나들었다. 워커 시기의 기록에서 ‘wave after wave’ 같은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사령부가 실제로 두려워한 것은 전선 전체를 자르는 포위와 퇴로 상실이었다.

8.3 매슈 리지웨이 - 중공군의 “리듬”을 읽다

리지웨이는 중공군을 신비화하기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했다. 야간에 접근하고, 며칠 강하게 공격하며, 보급이 소진되면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이용해 적극정찰과 제한공격을 재개했다. 중국 측에서 흔히 ‘자석전술(磁性战术)’이라 부르는 설명은 유엔군이 적과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포병·공군이 유리한 거리로 단계적으로 물러나는 방식을 가리킨다. 다만 ‘자석전술’은 미 육군의 정식 교리명이라기보다 중국 측 회고·서술에서 널리 쓰이는 명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7]

8.4 올리버 P. 스미스와 장진호의 해병대

장진호의 해병대 경험은 ‘끝없이 몰려오는 적’이라는 체험과 ‘실제 공격집단은 비교적 작았다’는 공식사 분석이 동시에 존재한다. 해병대 공식사는 기자들의 ‘human sea’ 서술을 조롱하듯 비판하며, 현장 해병들이 ‘중공군 소대 하나에 몇 개의 hordes가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적었다. [3] 이 대목은 개별 공격 순간의 수적 압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전체 전술을 무한한 밀집파도로 바꿔버린 과장을 지적한 것이다.

8.5 병사의 체험과 작전계획 사이의 거리

[참전자 증언] 야간에 한 고지를 방어하는 병사는 주변 수백 미터밖에 볼 수 없다. 그가 경험하는 것은 총성과 수류탄, 나팔, 반복되는 공격, 탄약 고갈, 후방의 총성이다. 그 관점에서는 ‘끝없이 몰려왔다’는 표현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

[분석적 추론] 그러나 역사가는 전방병사의 시야에 사단·군단의 작전지도를 덧붙여야 한다. 어느 부대가 정면에 있었고, 어느 부대가 측면을 돌았으며, roadblock은 언제 설치되었고, 공격제대가 실제로 몇 차례 교대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체험의 진실’을 ‘교리의 정의’로 오해하지 않게 된다.

9. 언론·선전·대중문화와 ‘인해전술’ 신화

9.1 미국 언론: human sea, hordes, wave after wave

1950년 말 미국 언론은 갑작스러운 중국 개입과 유엔군의 급속 후퇴를 설명할 간결한 이미지를 필요로 했다. ‘hordes’, ‘human sea’, ‘wave after wave’는 독자에게 즉각적인 그림을 제공했다. 이 언어는 실제 일부 전투의 반복 강습과 결합했지만, 기습·침투·포위·정보실패처럼 복잡한 원인은 뒤로 밀어냈다. 장진호 공식사가 언론의 ‘fantasies of human sea attacks’를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9.2 한국의 전후기억: “중공군 인해전술”이라는 압축어

한국에서 ‘중공군 인해전술’은 교과서, 참전기억, 반공서사, 영화와 방송을 통해 매우 강한 결합어가 되었다. 전쟁 초기 남하의 충격과 서울 재함락, 야간의 나팔소리, 중공군의 큰 인적 규모가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되었다. 이 표현은 전쟁기억의 언어로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전술사를 연구할 때는 ‘왜 유엔군이 후퇴했는가’를 숫자 하나로 설명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9.3 중국 선전도 역설적으로 같은 이미지를 강화했다

중국의 선전영화와 사진은 수많은 지원군 병사가 깃발과 함께 전진하는 장면을 영웅적으로 보여주었다. 목적은 '인해전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희생과 대중동원의 힘을 선전하는 것이었지만, 서방 관객에게는 오히려 '끝없는 인간의 바다' 이미지를 강화했다. 미 해병대 공식사가 이 점을 직접 지적한다. [3]

9.4 용어가 신화를 만드는 방식

'Mass attack'은 병력집중의 규모를 말하고, 'infiltration'은 접근방식을 말하며, 'envelopment'는 기동방향을 말하고, 'night attack'은 시간선택을 말하며, 'echeloned assault'는 공격제대의 순서를 말한다. 반면 'human wave'는 관찰자가 본 외형을 강하게 강조한다. 그래서 human wave 하나만 사용하면 서로 다른 전술적 차원이 모두 '사람이 많았다'는 설명으로 납작해진다.

10. 현대 군사사학계의 평가와 논쟁

10.1 미 육군·해병대 공식전사의 특징

미국 공식전사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종류의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한편으로 운산·청천강 등에서 'human wave', 'wave after wave', 'massive forces'라고 묘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세부 작전에서는 night movement, infiltration, envelopment, roadblock, local concentration 을 반복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공식전사 자체가 '인해전술 신화'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체험과 작전구조를 모두 담고 있음을 뜻한다. [1] [2] [3]

10.2 중국 공식서술: “인해” 부정, 기동·포위 강조

중국 공식서술은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대체로 서방의 왜곡으로 보고, 중공군의 강점을 유연한 기동, 집중우세병력, 근접전·야간전, 침투·포위로 설명한다. 이 주장은 전술기록과 상당히 부합하지만, 정치적 기억의 성격 때문에 반복강습의 손실이나 지휘실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자료는 '의도와 내부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단독으로 최종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7] [8]

10.3 Chen Jian - 개입결정을 전략·정치 맥락으로 복원

Chen Jian 의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는 새로 공개된 중국 자료를 활용해 개입결정을 단순한 국경방어 반응으로 보지 않고 혁명적 세계관, 중·소관계, 국내정치, 안보가 결합된 결정으로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중공군 전술' 자체보다 왜 중국 지도부가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국과 전쟁을 감수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0]

10.4 Zhang Shuguang - '군사적 낭만주의' 논쟁

Zhang 은 마오가 중국혁명에서 성공한 '약한 군대의 전략'을 한국전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낙관했다고 비판한다. 그의 'military romanticism' 개념은 사기·정치동원·인적요소를 기술·화력보다 우위에 두는 마오의 사고가 초기 성공 뒤 과신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 해석은 중공군의 큰 손실과 1951년 전략전환을 설명하는 데 영향력이 있지만, 초기 전술적 성공을 '행운'에 너무 많이 돌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11]

10.5 Xiaobing Li - 중국 자료로 본 1951년 춘계공세의 내부

Xiaobing Li 는 중국 지휘관·부대자료를 폭넓게 이용해 제5차 전역의 계획과 실행을 재구성한다. 그의 연구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 지휘통신의 어려움, 탄약·식량 부족, 정치통제, 병사들의 사기문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따라서 '중공군은 정교한 침투전만 했다'는 낭만화와 '사람만 밀어 넣었다'는 폄하를 모두 교정하는 데 유용하다. [12]

10.6 학계의 합의와 남은 논쟁

쟁점	대체적 합의	남아 있는 논쟁
인해전술의 존재	일부 전투에서 반복·밀집 정면강습은 실제 존재	그 빈도와 전체 전술에서의 대표성
핵심 작전방식	야간·침투·포위·국지집중이 초기 성공을 설명하는 데 필수	중국 혁명전쟁 교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그대로 적용되었는지

쟁점	대체적 합의	남아 있는 논쟁
초기 성공 이유	전략적 기습과 유엔군 과도한 전개가 중요	중공군 지휘능력과 유엔군 정보실패의 상대적 비중
손실과 보급	중공군 물류·화력 열세가 중대한 제약	정확한 손실수치, 중국 내부자료의 신뢰도
1951 년 전환	유엔군 적응과 중공군 춘계공세 실패가 전환 점	전략적 교훈을 베이징이 얼마나 빨리 학습했는지

11. 최종 판정과 대체 개념

판정: ②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과도한 단순화

‘중공군은 한국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사용했다’는 명제는 완전히 틀리지 않다. 운산·지평리·임진강·춘계공세의 일부 국면에서는 병력의 반복적 정면투입과 밀집강습이 실제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를 전쟁 전체의 대표 전술이라고 부르면 청천강·장진호·횡성 등에서 결정적이었던 야간 이동, 은폐, 침투, 우회, 포위, 도로차단, 근접전과 전략적 기습을 설명하지 못한다.

[확인된 사실] 중공군의 공격은 수적우세를 중시했다. 마오의 ‘집중우세병력’ 원리는 가능한 한 선택된 지점에서 적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모으는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현대 학계 평가] 그러나 숫자는 수단이었지 단 하나의 전술이 아니었다. 숫자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야간·산악접근, 침투·포위, 정보기습, 국지집중이었으며, 유엔군이 이 과정에 적응하자 단순 반복공격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분석적 추론] 따라서 가장 정확한 대체 표현은 ‘야간·은폐 기반의 침투·포위·근접전과 국지적 병력집중을 결합한 보병 중심 운동전’이다. 짧게 표현하면 ‘기동·침투형 보병집중전’이 적절하다. 특정 전투 장면을 설명할 때만 ‘제파식 정면강습’ 또는 ‘human-wave-like assault’라는 제한적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세 가지 해석	평가	이유
① 대체로 사실	낮음	일부 장면은 설명하지만 중공군의 작전체계·초기 성공원인을 지나치게 축소
②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과도한 단순화	가장 타당	밀집·제파식 공격의 실재와 침투·포위 중심 작전구조를 동시에 설명
③ 대부분 신화	낮음~중간	냉전기 과장과 언론 신화는 분명하지만 실제 반복 정면강습까지 부정할 수 없음

부록 A. ‘인해전술’에 관한 대표적 오해 10 가지

1. 오해: 중공군은 항상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정면으로 뛰었다.

교정: 대부분의 전투는 분산된 야간접근과 소부대 침투로 시작했다. 밀집돌격은 특정 국면에 집중되었다.

2. 오해: 중공군 지휘부의 공식 교리명이 ‘인해전술’이었다.

교정: 공개된 교리·전사에서 핵심어는 집중우세병력, 운동전, 침투·포위, 근접전·야간전이다.

3. 오해: 나팔과 호각은 병사를 무조건 돌격시키는 심리전 도구였다.

교정: 심리효과와 함께 공격개시·집결·방향전환을 알리는 하급부대 통신수단이었다.

4. 오해: 중공군은 개인화기만 들고 포병 없이 싸웠다.

교정: 포병·박격포가 존재했지만 규모·탄약·관측·수송에서 미군보다 크게 열세였다.

5. 오해: 초기 승리는 병력 숫자 하나로 설명된다.

교정: 전략적 기습, 유엔군 정보오판, 산악·야간전, 부대 간격, 퇴로차단이 숫자의 효과를 증폭했다.

6. 오해: 중공군은 인명손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교정: 큰 손실을 감수한 것은 사실이나 지휘부는 보급·손실을 중대한 제약으로 인식했고 1951 년 이후 목표를 축소했다.

7. 오해: 지평리는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다.

교정: 오히려 반복강습이 통합화력과 상호지원 방어에 막힐 때의 한계를 보여준다.

8. 오해: 장진호는 전형적인 무한 인파 돌격이었다.

교정: 미 해병대 공식사는 50~100 명 규모의 compact combat groups 와 short attack 을 강조한다.

9. 오해: “7 일 공세”는 모든 작전이 정확히 7 일에 끝났다는 법칙이다.

교정: 5~7 일가량의 휴대식량·탄약과 후방수송 한계를 표현하는 관찰이지 기계적 규칙이 아니다.

10. 오해: 1951 년 이후에도 양측 전술은 그대로였다.

교정: 유엔군은 전선을 촘촘히 하고 통합화력을 강화했으며, 중공군도 대규모 운동전에서 진지전·제한공격으로 변화했다.

부록 B. 중공군 실제 전술의 핵심요소

요소	실전 기능
전략적 은폐	개입규모·주공축을 숨겨 유엔군의 정보판단을 늦춤
야간 이동	항공정찰과 공중공격의 효율을 낮추며 집결
산악기동	도로 의존도가 높은 유엔군의 측면·후방으로 이동
침투	방어선의 틈을 통과해 지휘·보급·교량·고개를 위협
우회·포위	정면 압박과 측후방 기동을 결합해 퇴로를 차단
국지적 병력집중	전선 전체가 아니라 선택된 목표에 압도적 수적우세 형성
근접전	포병·공군·전차의 원거리 우위를 줄이는 거리에서 교전
제파식 반복강습	같은 목표를 여러 제대가 연속 공격, 일부 전투에서 human-wave 처럼 관찰
단순·다중 신호	무전기 부족을 전령·나팔·호각·신호탄으로 보완
짧은 공격주기	보급 한계 때문에 며칠 동안 강하게 공격한 뒤 재정비가 필요

부록 C. 주요 전투별 비교표

전투	중공군의 주된 실제 전술	유엔군의 체험·기록	“인해” 적합도	핵심 의미
운산 / 제 1 차 공세	야간기습, 다방향 접근, 지휘소 침투, roadblock	“massed infantry”, human-wave 체험	부분적	전장체험과 작전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사례
청천강 / 제 2 차 공세	취약부분 돌파, 산악침투, 포위, 퇴로위협	“어디서나 나타나는 적”, 급속 후퇴	낮음~부분적	전략적 기습과 전선 분절이 핵심
장진호	50~100 명 전투집단, short attack, 침투·roadblock	반복 야간공격, 포위감	낮음~부분적	미 해병대 공식사가 human sea 과장을 직접 비판
제 3 차 공세 / 서울	서부 집중, 야간공격, 압박 후 추격	대규모 전선후퇴	부분적	성공했으나 보급 때문에 지속성 제한
형성·원주	한국군 취약부분 집중, 돌파 후 퇴로위협	후퇴로 혼란, 포위 공포	낮음~부분적	약한 연결부를 선택한 전형적인 집중
지평리	여러 방향 야간공격, 약점탐색, 반복강습	wave-like assaults	중간~높음	통합화력·원형방어가 반복공격의 한계 노출
임진강	도하, 산악침투, 대대 분리, 반	wave after wave	중간~높음	실제 파상공격과 포위기동이

전투	중공군의 주된 실제 전술	유엔군의 체험·기록	"인해" 적합도	핵심 의미
	복강습			동시에 존재
1951 춘계공세	대규모 병력집중, 다로공격, 침투·포위, 반복강습	대규모 mass attack	중간	병력의 양이 최대였지만 전략적 돌파에는 실패

주석 및 참고문헌·추가 읽을 자료

- [1] Richard W. Stewart, The Korean War: The Chinese Intervention, 3 November 1950–24 January 1951,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CMH Pub 19–8. 운산, 초기 중공군 개입, 유엔군의 충격과 후방차단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 [2]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CMH Pub 20–4. 청천강·장진호·서울 후퇴·지평리·춘계공세의 작전 수준 기본자료.
- [3] U.S. Marine Corps History Division, Frozen Chosin: U.S. Marines at the Changjin Reservoir. 특히 'human sea' 과장과 50~100 명 규모 compact combat groups, short attack, 신호체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
- [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CMH Pub 20–2. 1950 년 10~11 월 극동군의 정보판단과 중공군 개입 초기 기록.
- [5] John J. McGrath, The Korean War: Restoring the Balance, 25 January–8 July 1951,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CMH Pub 19–9. 횡성·지평리·춘계공세와 리지웨이 시기의 적응을 요약한다.
- [6] Russell A. Gugeler, Combat Actions in Korea,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CMH Pub 30–2. 지평리 등 소부대 전투를 전술 수준에서 재구성한다.
- [7] 中国军网/解放军报, '抗美援朝战争中我军战法运用及启示: 灵活机动 聚强击要,' 2020-10-22. 초기 전법을 다로 기동공격, 침투분할, 우회포위, 근접·야간전으로 설명하는 중국 측 공식서술.
- [8] 中国军网/解放军报, '抗美援朝战争胜利启示录: 离开后勤就打不了仗,' 2020-10-19; 관련 후방보급 회고. 공세가 보급 때문에 약 5~7 일로 제한되는 문제를 중국 측에서 인정한다.
- [9] U.S. Army, Army History, Winter 2012, Van Fleet 의 1951 년 포병 운용과 'Van Fleet Load' 관련 연구. Mossman 의 Ebb and Flow 와 함께 읽을 것.
- [10]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중국의 개입결정을 중국 문서와 냉전정치 속에서 분석한 대표 연구.
- [11]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마오의 인적요소·혁명전쟁 경험과 한국전쟁 전략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
- [12] Xiaobing Li, China's Battle for Korea: The 1951 Spring Offensive, Indiana University Press, 2014. 중국 지휘관·부대자료를 이용해 제 5 차 전역의 계획, 대규모 공격, 통신·식량·탄약 문제를 재구성.
- [13]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50–1951: They Came from the North,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0. 미·한국·중국·소련의 시각을 결합한 현대 종합전사.
- [14]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Doubleday, 1967; Soldier: The Memoirs of Matthew B. Ridgway, Harper, 1956. 리지웨이의 지휘관 시각과 1951 년 유엔군 회복의 논리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15]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McGraw-Hill, 1964; U.S. Senate,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hearings, 1951. 중공군 개입 인식과 전쟁확대 논쟁의 1 차자료.
- [16] 영국 National Army Museum 및 영국 전투기록의 Battle of the Imjin River 자료. 29 여단과 글로스터대대의 전투경험, 반복공격과 포위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17] 中国军网, 리지웨이의 '礼拜攻势' 관찰과 이른바 '磁性战术', 1951 년 이후 '零敲牛皮糖' 전법 전환을 다룬 자료. 용어 자체는 중국 측 회고·설명 성격의 성격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18] Lynn Montross and Nicholas A. Canzona, U.S. Marine Operations in Korea, 1950-1953, Vol. III: The Chosin Reservoir Campaign. 장진호 전투의 미 해병대 공식 상세전사.

[19] Peng Dehuai, 彭德怀自述(펑더화이 자술/회고). 중공군 최고지휘부의 전쟁인식과 현대전·보급에 대한 반성을 읽을 수 있는 핵심 중국 측 회고자료.

[20] 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군사역사 관련 편찬, 抗美援朝战争史 및 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战史 계열. 중공군 작전의 중국 측 공식 편년을 확인할 때 사용하되, 미군 공식전사·현대연구와 교차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읽을 자료 - 우선순위

- 1 순위: Mossman, Ebb and Flow - 가장 먼저 읽을 미 육군 공식전사. 제 2차 공세부터 춘계공세까지 작전 흐름을 연결해 준다.
- 2 순위: Frozen Chosin 및 Montross/Canzona - “human wave” 통념을 장진호 사례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다.
- 3 순위: Xiaobing Li, China's Battle for Korea - 중국 자료에서 본 1951년 춘계공세의 내부문제와 실제 공격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 4 순위: Chen Jian + Zhang Shuguang - 중국의 개입결정과 마오의 군사사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5 순위: Appleman + Ridgway 회고 - 미군 정보실패와 1951년 전술적 적응을 연결해 볼 수 있다.

자료 해석의 마지막 원칙

‘인해전술’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해 놓고 자료를 끼워 맞추지 말아야 한다. 각 전투에서 실제 병력배치, 접근축, 공격제대, 도로차단, 측후방 부대, 통신·보급, 유엔군 방어방식을 먼저 복원한 뒤 그 장면이 human wave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